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133-167  
<https://doi.org/10.29212/mh.2019..113.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공군의 클라우드비츠와 머헨 찾기: 전간기 영국공군참모대학의 군사사 교육<sup>1)</sup>

이상현\*\*

1. 들어가며
2. 공군장교에게 필요한 군사사 교육
3. 미국 남북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항공기?
4. 군사사: 지휘관을 위한 풍부한 사례집
5. 실용적 활용을 위한 군사사 - 전쟁의 원칙 발굴하기
6. 7년전쟁: 전쟁 최고지휘부를 위한 교과서
7. 나가며

\* 본 연구는 연구석사(M.Res.) 학위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1) 전간기(inter-war period, 戰間期)는 제1차 세계대전 휴전 혹은 종결(1918-1919)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 이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military history'를 주로 '군사사(軍事史)'로 옮겨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번역어인 '전쟁사(戰爭史)'와 구분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military history의 번역어를 둘러싼 논의는 빠르게는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서양의 연구 성과에 발맞추어 군사제도, 군사전략 및 전술, 군사사상과 리더십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군사사와 전쟁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군사사 연구에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 - 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서양사론』 제98호(2008.9.), pp.283-308; 이내주,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양사론』 제107호(2010.12.), pp.5-32

## 1. 들어가며

나는 성을 위한 주춧돌을 세웠다. 만약 누군가 겨우 오두막만한 건물을 그 위에 세우더라도, 최소한 그것은 매우 좋은 오두막이 될 것이다.<sup>2)</sup>

휴 트렌차드(Hugh Trenchard)

공군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세계 최초로 독립된 군종으로 인정받은 영국왕립공군(Royal Air Force, 이하 영국공군)의 역사도 이제 겨우 100년을 넘겼을 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하 1차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8년 4월 1일에 육군과 해군에 분산되어 있던 항공 자산을 모아서 탄생한 영국공군은, 짧은 역사와 함께 전시의 필요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이유로 전쟁 직후 육군과 해군의 십자포화를 견뎌야 했다. 국방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육·해군과 대푯 축소된 국방 예산을 놓고 공군이 다투었던 역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미 적지 않다.<sup>3)</sup>

영국공군의 초대(1918)와 제3대 공군참모총장(1919-1927)을 역임한 휴 트렌차드를 ‘영국공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국공

---

2) ‘Architect of the RAF - Obituary of Lord Trenchard’, *The Aeroplane*, 17 Feb 1956

3) 1차대전 당시 영국 항공력이 거둔 성과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는 다음을 참조하라. George K. Williams, *Biplanes and Bombings: British Bombing in World War I*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9); James Pugh, *The Royal Flying Corps, the Western Front and the Control of the Air, 1914-1918* (London: Routledge, 2017). 전간기 영국공군이 독립군종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펼친 노력에 대한 개괄은 여전히 다음의 글이 유용하다. Phillip S. Meilinger, ‘Trenchard, Slessor, and Royal Air Force Doctrine before World War II’, *The Path of Heaven: The Evolution of Airpower Theory*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7). 영국공군 창설기에 대한 최신의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하라. Richard Overy, *RAF: the Birth of the World's First Air Force* (London: Penguin, 2019). 전간기 영국의 항공 정책에 대한 개괄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해야한다. Montgomery Hyde, *British Air Policy Between the Wars 1918-1939* (London: The Chaucer Press, 1976)

군을 독립 군종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그의 리더십을 기념하기 위함이다.<sup>4)</sup> 서두에 인용한 트렌차드의 경구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기둥’은 교육, 예비군, 기술적 이해의 증진이였다.<sup>5)</sup> 트렌차드는 전쟁 중에 팽창된 조직과 장비, 인력과 예산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중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당대 타군의 최고위급 장교들에 비해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음에도, 군사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양성과정과 보수과정을 가리지 않았다.<sup>6)</sup> 1922년에 앤도버(Andover)에 설립된 공군참모대학(Air Staff College, 이하 앤도버 혹은 참모대학)은, 육군과 해군처럼 제대로 교육받은 참모장교가 없다면 새로운 전투조직이 유지될 수 없다는 “시급한 요구”의 결과물이였다.<sup>7)</sup>

4) 트렌차드는 영국공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1918년 4월 1일 이전(1월)에 이미 항공 장교단의 수장이었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4월 10일에 공식적으로 참모총장으로 전환된 보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공군이 창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초대 참모총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영국공군 창설 95주년을 기념하는 *Air Power Review*에서는 영국공군 창설의 역사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영국공군의 아버지’이라는 호칭이 트렌차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당대 영국공군의 창설을 위해 힘쓴 다른 인물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David Jordan, ‘Lieutenant-General Sir David Henderson: Forgotten Father of British Air Power?’, *Air Power Review: Special Edition* (Centre for Air Power Studies: Spring 2013), pp.19-20. 트렌차드는 그의 명성, 그리고 군사사학계와 군내에서 거명되는 빈도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가 편찬되었다. Russell Miller, *Boom: The Life of Viscount Trenchard, Father of the Royal Air Force* (London: W&N, 2016)

5) Brian Burrige, ‘The Trenchard Memorial Lecture’, *Air Power Review* (Centre for Air Power Studies: Spring 2005), p.1

6)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헨리 윌슨(Henry Wilson, 1864-1922)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참모대학(Camberley)에서 교육을 받았으며(1892-1893) 육군참모대학장을 역임(1907-1910)하기도 했다. 대학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윌슨은 육군참모대학을 육군을 위한 일종의 학파(a school of thought)를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 Keith Jeffery, *Field Marshal Sir Henry Wilson: A Political Soldi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68. 해군참모총장이었던 데이비드 베티(David Beatty, 1871-1936) 역시 해군참모대학(Greenwich)에서 참모교육(1890-1891)을, 포술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았다.

7) Hansard, HC Deb, 21st March 1922, Vol. 152, Col. 293.

전간기가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낸 영국공군에게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 개념이 조직 독립의 당위성이었다. 1차대전의 처참한 살육을 겪은 유럽의 주요국은 다음 전쟁에서는 결코 그러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참호와 전선을 넘어 적의 중심지를 직접 타격, 전쟁 수행 능력을 감퇴시켜 적은 희생으로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전략폭격의 개념은 공군에게는 독립의 근거였으며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줄어드는 국방비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공군이 전간기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무는 제국경찰(Imperial Policing) 활동이었다. 영국공군은 1차대전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팽창한 제국의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사태에 육군 병력 파병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적 선택지로 급부상했고, 이러한 새로운 임무의 발굴은 선언적 당위성에 불과했던 전략폭격개념보다 영국공군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8)</sup> 참모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영국공군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트렌차드는 1919년에 그의 보고서 「영국왕립공군의 영구적인 조직(Permanent Organization of the Royal Air Force)」에서 참모대학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sup>9)</sup> 참모대학을 설립

8) 실제로 항공력의 '전략적 효과'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개념이다. 이를 둘러싼 현대의 개괄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데이비드 조던, '항공우주전', 데이비드 조던 등 6인, 강창부 역, 『현대전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4). 당시 미국과 영국의 항공력 주창자들이 신봉했던 전략폭격에 대한 믿음과 실제로 전간기에 항공력이 수행했던 임무 사이의 괴리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Tami Davis Biddle, *Rhetoric and Reality in Air Warfare: The Evolution of British and American Ideas about Strategic Bombing, 1914-1945*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9) Ross Mahoney, 'The Forgotten Career of Air Chief Marshal Sir Trafford Leigh-Mallory, 1892-1937: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Leadership

하는 과정에서 트렌차드가 구체화한 두 가지 “중점 요구사항”은 첫째, 하나의 학파(a school of thought) 창출과 둘째, 참모업무에 익숙한 장교로 만드는 훈련이었다.<sup>10)</sup> 후자의 경우 참모제도가 등장한 이후 모든 지휘관들의 고민이었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트렌차드가 1921년에 쓴 기고문에는 ‘학파’라는 개념에 대한 그의 관념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그는 전쟁사와 해양사에서 원칙을 추출해내는 클라우드비츠와 머헨처럼 공군에도 “위대한 이론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원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공군참모대학의 역할은 이를 찾아내고 학파를 만들어서 (공군의) 바깥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트렌차드의 비전을 참모대학에서 구체화할 책임자로는 전문군사 교육을 받았고 풍부한 참모직 경험이 있는 로버트 브룩-포핌 (Robert Brooke-Popham) 준장이 선정되었다.<sup>12)</sup> 브룩-포핌은 1차대전 직후 육군참모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고위급 공군 장교들 중 한 명이었으며, 전쟁 기간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트렌차드와 함께

---

Development in the Interwar Royal Air Force’ (Ph.D.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2014), p.95; TNA, AIR 8/12, Permanent Organization of the Royal Air Force

10) TNA, AIR 2/251 Policy Regarding RAF Staff College, Minute Scheet No. 185991/21

11) Hugh Trenchard, ‘Aspects of Service Aviation’, *The Army Quarterly*, Vol. 2, No.1 (1921), pp.10-21

12) 브룩-포핌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 최대의 군사기지였던 싱가포르 전투 패배의 책임자로 많이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1차대전 당시 영국 항공력 운용을 위한 현대적 군수체계를 설계했으며, 싱가포르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클레어 셔놀트(Claire Chennault), 중국의 장개석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럽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전역에서도 최선의 억제책과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브룩-포핌에 대한 연구 역시 그의 계급과 명성에 비해 굉장히 제한되었으나, 최근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가 출판되었다. 브룩-포핌은 1910-1911년에 육군참모대학에서 교육받았다. Peter Dye, *The Man Who Took the Rap: Sir Brooke-Popham and the Fall of Singapore*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17)

근무하며 그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특히,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는 영국 대륙원정군 항공부대의 전반적인 운영과 군수지원 및 행정 업무의 대부분을 책임지면서도, 부하들과의 소통에 능숙하지 않은 트렌차드의 의중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3)</sup>

여느 부대를 창설하는 임무와 마찬가지로, 초대 학장인 브룩-포뎀이 주로 기여한 것은 향후에도 지속될 “기초적인 조직, 방향과 열개”의 설정이었고 이를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4)</sup> 하지만 그의 기여는 비단 행정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특히 군사교육에서 역사(군사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통찰을 남겼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초대 공군참모대학장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부족한 항공전사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1차대전을 직접 경험한 교육생들의 전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했다. 둘째, 교육생들은 참모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지휘관이 될 것이므로, 특히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임기 중에 러일전쟁과 1차대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쟁사 사례 수업과 토론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었다.<sup>15)</sup>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종종 명시적인 교리로 나타나며 언제나 전쟁의 경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제국을 1차대전으로 이끌었던 이른바 쉘리펜 계획은 육군참모총장인 알프레트 폰 쉘리펜(Alfred Graf von Schlieffen)의 ‘결정적 전투’에 대한 집념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sup>16)</sup> 포위·섬멸의 전투 개념에 천착한 쉘리펜은

13) 위의 책, pp.55-73

14) Tony Mason,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72* (RAF Staff College Bracknell, 1972), p.18

15) Mason,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72*, pp.9-10

16) 세간의 평가와 달리 쉘리펜이 대프랑스 전쟁의 장기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결정적 회전 이후에도 전투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지적도 있다. 게하르트 P. 그로스, 진중근 역,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 총참모부 작전적

칸나에 전투를 “모든 시기의 서양전쟁사 속에서 발견한 (승리의)원형”으로 여겼으며, 유사한 전투 사례를 한데 묶은 저서를 출판하여 참모진에게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교육시키고자 했다.<sup>17)</sup> 제2차 세계대전(이하 2차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의 항공력이 수행한 전략폭격작전은 그 형태와 수행방식, 결과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1차대전에서 최초로 수행되기 시작한 전략폭격은 전간기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전략폭격에 대해 회의적인 비평가들은 전간기에 영·미 항공군의 장교단이 비현실적인 전략폭격 개념을 “맹종적인 신념”과 1차대전의 제한된 경험에 대한 과장된 해석에 근거해서 발전시켰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sup>18)</sup> 이런 비판은 초창기 영국 공군 교리 발전의 구체적인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반박되었다.<sup>19)</sup> 하지만 반박 과정에서 공군참모대학의 구체적인 역할과 교육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은 1922년에 개교하여 1939년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때까지 운영된 공군참모대학에서 진행된 교육 내용을 군사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sup>20)</sup> 초창기 공군참모대학에는 중위부터 소령까지 다양한 계급의 장교들이 선발되어 입교했고, 3기부터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입교한 자원들은 3~4개 학기로 나누어서 1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해 최초 입교 차수부터 1기로 칭할 것이다. 특히 ‘영국공군

사교의 역사』 (길찾기, 2016), pp.140-1

17) Arden Bucholz, *Hans Delbruck & The German Military Establishment: War Images in Conflict* (Iowa: University of Iowa Press, 1985), p.63

18) Biddle, *Rhetoric and Reality in Air Warfare*, pp.123-127

19) Neville Parton, ‘The Development of Early RAF Doctrin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2, No. 4 (Oct, 2008), pp.1155-1178; ‘The Evolution and Impact of Royal Air Force Doctrine: 1919-1939’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2009)

20) 1939년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참모대학은 단기 교육과정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며 신입생 모집을 임시로 중단했다.

이 부족한 전쟁 경험을 만회하고 전략폭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족한 사례로만 구성된)전쟁사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반박할 것이다.

군사사를 통해서 영국공군이 교육하고자 했던 내용을 주제별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해 시간 순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제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다만 시간적 분석의 범위는 전간기 전체를 유지하여 이전 연구들이 주로 참모대학 설립기의 강의요강만 분석한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우선 2장에서 새롭게 창설된 공군에서 참모대학에 군사사 교육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이를 통해 공군참모대학에서는 1차대전 전(前) 시기의 '항공기가 없는' 군사사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3장에서 미국남북전쟁과 러일전쟁의 강의록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최신 기술을 다루는 공군 장교에게도 과거 장군들의 사례가 통솔력(Leadership)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인다. 5장에서는 군사사가 또한 '전쟁의 원칙'을 찾기 위해 풍부하게 활용되었으며, 마지막 장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7년전쟁의 강의록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군참모대학은 직접 겪은 1차대전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군사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목적은 단순히 참모를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 리더를 교육하기 위한 군사교육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특히 초기의 혼란기를 지난 이후에도 군사사 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례를 통해 공군참모대학이 군사교육기관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 군사사가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1차대전을 포함해 항공기가 등장한 이후 시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분량의 제한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 2. 공군장교에게 필요한 군사사 교육

1차대전 직후의 혹독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1922년에 창설된 영국공군참모대학이 당대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21)</sup> 비록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트렌차드 공군참모총장은 대독 연설문에서 단 한 가지, “경제(economy)”만을 강조했다. 참모총장이 당시 공군이 “짚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묘사한 것을 보면 여기서 ‘경제’는 단어 뜻 그대로 해석되어야 했다.<sup>22)</sup> 전쟁 이후 급격한 군비 감축에 따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신생 조직은 (양적이 아닌) 질적 팽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브룩-포팸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참모총장의 1919년 보고서(「영국왕립공군의 영구적인 조직」)에서 “비행대대를 ‘최소’로 유지하더라도 ‘장교와 병사의 훈련을 완벽하게’하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 놓았다.<sup>23)</sup> 브룩-포팸은 초대 참모대학장으로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참모대학의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sup>24)</sup>

- 1)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참모 업무를 위해 장교를 훈련한다.
- 2) 미래의 지휘관들에게 땅과 바다, 하늘을 막론하고 전쟁의 더 넓은 측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3) 학과를 찾아내고 공군의 조직, 훈련 혹은 운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

21) Mason,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72*, p.5

22) LHCMA, Brooke-Popham Papers, 1/5/1, Opening Address, p.3

23) LHCMA, Brooke-Popham Papers, 8/3/7, Permanent Organization of the Royal Air Force, 25 Nov 1919

24) LHCMA, Brooke-Popham Papers, 1/5/4,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RAF Staff College, 4 Apr 1922, pp.1-2

기조연설의 초안에서는 두 번째 목적이 단순하게 ‘미래의 지휘관을 훈련한다’로 되어 있었다. 최종안에서 “땅과 바다, 하늘을 막론하고 전쟁의 더 넓은 측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구체화된 부분은 실제로 실행한 교육 내용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연설 말미에서 브룩-포팸은 세 번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변화하지 않는 전쟁의 원칙은 전장환경(지상, 해양, 공중)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변형을 분명히 밝히고, 언제 그리고 왜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공군참모대학의 임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공군을 운용하는 방식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고 논쟁적이므로, “(공군의 운용 방식을)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고 명확하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sup>26)</sup>

4개 차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작성한 일종의 추수평가 보고서에서 브룩-포팸은 전쟁사 학습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모든 전쟁이 각각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한 전쟁만으로는 (전쟁과 관련된)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1914-18년의 전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sup>27)</sup> 전쟁사 교육에 있어서 그의 모델은 “20번째 강의에서야 알렉산더 대왕을 다루는” 육군참모대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브룩-포팸은 1차대전 이전의 전쟁을 포함하도록 전쟁사 교육을 확장해야만, 이들을 최근의 경험과 비교하여 “일시적인 것에서 영구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sup>29)</sup>

25) LHCMA, Brooke-Popham Papers, 1/5/3, Opening of RAF Staff College: Summary of Remarks to be made by Air Commodore Brooke-Popham

26) Brooke-Popham Papers, 1/5/4, p.3

27) LHCMA, Brooke-Popham Papers, 1/5/10, The work at the RAF Staff College, 5<sup>th</sup> May 1925

28) RAFM, AIR 69/40, Land Warfare (1)The Development of War on Land, 1925, p.1

29) Brooke-Popham Papers, 1/5/10, p.6

이러한 그의 관점은 4년의 재임기간 중에 운영한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스스로도 인정했듯 “시험적인” 1기의 교과과정은 1866년의 전역,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sup>30)</sup> 이들 중 많은 주제가 이후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동시에 미국 남북 전쟁, 러일전쟁, 7년전쟁 등의 주제는 오래도록 앤도버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전쟁의 본질(The Nature of War)」이나 「지상전(Land Warfare)」과 같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제목을 가진 과목 역시 고대 그리스의 팔랑크스 대형과 로마의 레기온부터 시작하는 군사사를 다루고 있었다.<sup>31)</sup> 더불어 초창기 「통솔력과 사기(Leadership and Morale)」 과목과 과제도 역사적 사례로 가득했다.<sup>32)</sup> 다음 장은 이처럼 항공기가 등장하지 않는 군사사를 초창기 공군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한다.

30) LHCMA, Brooke-Popham Papers, 1/5/7, Final Address, 29<sup>th</sup> Mar 1923; RAFM, AIR 69/19, Programmes of Work - 1st Course, 4<sup>th</sup> April 1922 to 30<sup>th</sup> March 1923

31) RAFM, AIR 69/67, The Nature of War, 4<sup>th</sup> February 1930; AIR 69/40, Land Warfare, 25<sup>th</sup> May 1925

32) 매년 교육 시수에 차이가 있었고 문서고에 남아 있는 강의록도 극히 제한적이므로 커리큘럼에서 군사사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어렵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과 유사한 강의 제목을 군사사 교육으로 가정하고, 현장실습과 휴일 등을 제외한 총 강의 시간 중 군사사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두 기수에 대해서만 추출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수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과목도 강의 시간으로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군사사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보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군사사 과목 시간/총 강의 시간					
제1기(1922)			제9기(1930)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27/89	28/79	15/57	6/50	13/44	12/66
31.1%			19.4%		

### 3. 미국 남북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항공기?

대학장으로서 브룩-포핀은 트렌차드의 지침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교육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의록을 봐야한다. 공군참모대학 창설 초기에 대학장들은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특정 강의도 맡아서 진행했다. 브룩-포핀의 경우 「미국남북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항공전(Air Warfare)」, 「항공전략(Air Strategy)」 등의 강의와 토론을 지도했다. 항공기가 없었던 러일전쟁과 미국남북전쟁을 다루는 수업의 목적은 당연히 “해양과 지상에서의 전쟁수행”을 살펴보는 것이었다.<sup>33)</sup> 거기에 더해서, 브룩-포핀은 항공기가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러일전쟁과 미국남북전쟁에 항공기가 존재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 유용한 사고실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sup>34)</sup> 역사학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러한 사고실험이 흥미나 지적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sup>35)</sup> 브룩-포핀은 다음과 같은 교육생을 위한 지침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항공기가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기를 기대했다.

항공기의 효과를 고려할 때, 대립하는 양측이 상대방의 정찰이나 폭격을 저지할 정도의 공중우세(air superiority)를 획득하고 있지는 않다고 가정할 것<sup>36)</sup>

33) RAFM, AIR 69/38, Programmes of work - 4th Course, 4<sup>th</sup> May 1925 to 26<sup>th</sup> March 1926

34) RAFM, AIR 69/48, JACKSON's Valley Campaign 1862, July 1925

35) Richard Evans, *Altered Pasts: Counterfactuals in History* (Waltham: Brandeis University Press, 2013), p.2

36) AIR 69/48, JACKSON's Valley Campaign 1862

「미국남북전쟁」은 전쟁 전체를 다루는 2시간의 강의와 남부연합의 잭슨(Thomas Jonathan Jackson)이 실시한 1862년 세넨도어 계곡 전역을 다루는 3시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6기까지 지속되다가 7기에서 1시간의 토론으로 압축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sup>37)</sup> 강의요약문에서 브룩-포핌은 전쟁의 네 가지 부분, 즉 그것의 엄청난 규모와 리더십, 그 전쟁이 전쟁의 발전에 미친 영향, 영국인과 미국인의 유사성, 전쟁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8)</sup> 브룩-포핌을 뒤이어 강의를 맡은 그라햄(Graham) 소령은 더 함축적으로, “1914-18년의 전쟁과 광범위하게 유사한 미국남북전쟁의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sup>39)</sup> 브룩-포핌의 강의록을 통해, 그 문제들이란 “전쟁의 발달에 새로운 전환기”, “전국가적 자원의 활용”, 그리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와 전방의 군대의 사기 사이의 긴밀한 연결”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또한 그는 북부가 시행한 해상봉쇄가 최종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메모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 총체적으로 전쟁을 연구하려 했던 그의 노력이 드러난다.<sup>41)</sup> 하지만 강의록에서는 그가 말한 미국남북전쟁과 1차대전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의 생각을 추적하기는 어렵다.<sup>42)</sup>

브룩-포핌의 메모 중 “항공기의 가치” 항목에서 그는 남부연합의

37) AIR 69/38, Programmes of work - 4th Course; AIR 69/52, Programmes of work - 6th Course, 19<sup>th</sup> September 1927 to 14<sup>th</sup> December 1928

38) AIR 69/48,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July 1925

39) RAFM, AIR 69/51,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by S/Ldr. R. Graham, 14 March 1928

40) AIR 69/48,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41) AIR 69/48, Handwritten note

42) 같은 시기에 명성을 떨친 리델 하트가 북부의 셔먼(William Sherman)이 펼친 남부를 가로지르는 기동을 이른바 ‘간접접근전략’ 모델의 대표 사례로 무리하게 비유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Nimrod Tal, *The American Civil War in British Culture: Representations and Responses, 1870 to the 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pp.46-48을 참조하라.

리(Robert E. Lee)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그들의 기병대가 부재했고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3)</sup> 또한 그는 요크타운에서 벌어진 7일의 전투 기간 중에 남부가 항공기를 갖고 있었다면 북부의 맥클레런(George Brinton McClellan)의 후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샤프즈버그 전투도 좋은 예라고 말하지만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게티즈버그가 기병 돌격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sup>44)</sup> 브룩-포텀은 이 사례들을 통해 항공기가 기병대를 대체하는 정보 수집 수단과 정찰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862년의 세넬도어 계곡 전역을 다루는 강의와 토론에서도 일일 단위의 부대 기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항공기의 잠재성을 다루는데, 남부연합의 잭슨이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실패한 정찰과 추적을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sup>45)</sup>

브룩-포텀은 1862년의 전역에서 항공기의 또 다른 잠재력을 다룬다. 북부는 전역이 시작되기 전에 제해권을 바탕으로 해안 마을들을 장악했고, 이를 통해 남부연합이 주전장에서 일부 병력을 빼내어 해안 방어부대로 배치하도록 강요했다. 브룩-포텀은 만약 남부연합이 항공기를 보유했다면 부족한 인력을 해안방어를 위해 배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했다.<sup>46)</sup> 또한 그는 남부의 항공기는 북부의 전략과 수도의 위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남부의 항공기는 북부의 수도인 워싱턴의 병력 충원을 방해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북부는 뉴욕과 같은 북쪽의 도시로 수도를 옮기고 전략을 수정

43) AIR 69/48, Handwritten note

44) James M.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American Civil War* (London: Penguin, 1990), pp.653-663

45) AIR 69/48, JACKSON's Valley Campaign 1862, pp.8-9

46) 위의 글, p.2

했으리라 추정했다.<sup>47)</sup> 이러한 사례들에서 항공기는 주로 남부연합의 부족한 해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항공기의 잠재력에 대한 내용은 전체 강의와 토론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은 1862년의 전역을 1796년의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이 수행한 북부 이탈리아 전역과 비교하거나 그러한 기동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루어졌다.<sup>48)</sup> 중심 주제는 단연코 전략이었으며,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러일전쟁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러일전쟁 강의록을 살펴보면, 강의요강에서도 “항공기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고려”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항공기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sup>49)</sup> 이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흔적은 1925년의 「항공전쟁」 강의록에 불과하다. 이 강의에서 브룩-포핀은 만약 일본이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뤼순항에 대해 봉쇄를 실시하는 대신 직접 타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짧게 말한다.<sup>50)</sup> 심지어 전체 강의 시간의 절반은 학생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강사의 공식적인 질문은 모두 지상과 해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주로 압록강 전투 이후에 러시아 극동육군의 사령관이었던 쿠로파트킨(Alexei Nikolaievich Kuropatkin)이 처했던 딜레마나, 러시아 발트해 함대가 모든 예비 전력을 한 번에 아시아로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이었다. 따라서 토론은 주로 전략적 상황 판단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47) 위의 글, p.4

48) 위의 글, pp.9-13

49) RAFM, AIR 69/22, War Lecture 1: Russo-Japanese War, February 1923; RAFM, AIR 69/19, Programmes of Work - 1st Course

50) RAFM, AIR 69/41, Air Warfare Part V. The Effect of Air Power on War, June 1925, p.81

러일전쟁에서 전쟁 당사자 양측은 모두 제해권 장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바다에서의 충돌이 지상의 전황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했으나 영군공군참모대학의 강의에서는 해군 작전의 측면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sup>51)</sup> 또한 브룩-포핌은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전술적 교훈이 없다고 단언했는데, 러일전쟁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1차대전 전의 영국육군에 지배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의록은 주로 1차대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52)</sup> 만주에서 맞붙은 러시아와 일본 육군 단위부대들의 세부적인 기동에 많은 관심을 둔 강의에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이라는 또 다른 강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러일전쟁」은 브룩-포핌이 대학장 자리에서 이임하자 바로 강의계획에서 사라졌고, 이후에 다룰 「7년전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강의요강을 제외한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과목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초기 커리큘럼에는 군사사에 대한 브룩-포핌의 개인적인 관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육군참모대학이 교육생들에게 주요 장군들의 전역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하던 시절에 재학했으며, 그러한 학습을 진심으로 즐겼다.<sup>53)</sup> 브룩-포핌은 재임 중 커리큘럼 작성의 모든 부분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임하면서 참모대학 도서관에 기증한 600권 가량의 군사사와 전쟁에 관한 도서들을 통해 그의 군사사에 대

51) John W. Steinberg, 'The Operational Overview' in John W. Steinberg et al.(eds.),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Brill, 2005), p.107

52) Jonathan B. A. Bailey, 'Military history and the pathology of lessons learned: the Russo-Japanese War, a case study' in Williamson Murray and Richard H. Sinnreich(eds.), *The Past as Prologue: The Importance of History to the Military Prof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84-189

53) Dye, *The Man Who Took the Rap*, pp.31-32

한 관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54)</sup> “다른 군종을 제물로 삼아가면서까지 항공 부문의 발전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초대 학장의 바람과 함께 전쟁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심어 주겠다는 참모대학의 목적은 항공기가 없던 시절의 전쟁사마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교육을 통해 일부나마 달성되었을 것이다.<sup>55)</sup>

#### 4. 군사사: 지휘관을 위한 풍부한 사례집

참모대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관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참모장교에 대한 교육이다. 브룩-포팸은 참모장교의 목표를 간단하게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56)</sup> 그가 참모장교의 임무와 명예에 대해 여러 다른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참모장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많은 행정적인 소요를 문제 없이 처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교육의 많은 부분은 「참모의 임무」, 「전문 작성」, 「참모보고서」, 「요약문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sup>57)</sup>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역시 참모대학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1차대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팽창한 항공산업은 전쟁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공군에 근무하는 장교들일지라도 그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해군과 유사하게 공군 역시 기술군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모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논의와 강의가 자주 이루어졌으

---

54) 위의 책, pp.81-82

55) Brooke-Popham Papers, 1/5/1, Opening Address, p.3

56) LHCMA, Brooke-Popham Papers, 1/5/11, The Functions of a Staff College, 5<sup>th</sup> May 1925, p.5

57) RAFM, AIR 69/58, Programmes of work - 7th Course

며, 많은 경우 교육생들의 현장학습은 항공기 공장과 연구소를 포함했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학습이 군사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상 그 연원을 이른바 ‘군사혁명’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 소총과 대포가 전장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장교들에게 과학적 사고, 즉 수학과 물리, 탄도학 등을 가르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기 때문이다.<sup>58)</sup> 연안을 벗어나서 점차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 해군 장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천문학과 기하학이 항법을 위해 요구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지식과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통솔 능력의 교육-전통적인 고전과 역사를 통한 전인교육-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대체로 19세기 프리시아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두 분야가 절충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졌다.<sup>59)</sup>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육군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군은 종종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는 착각에 지속적으로 휩싸였다.<sup>60)</sup>

앞서 언급했듯 앤도버는 참모장교를 훈련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지휘관, 즉 리더를 키우고자 했다. 통솔력 교육에 대해 많은 이론이 있지만, 피터 그레이가 언급했듯 당시의 장교단은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나 “위대한 영웅(Great Man)”이 “무엇을 했는가(what one did)”를 리더가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sup>61)</sup> 참모대학 「통솔력」 과목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통솔력이 자주 「사기(Morale)」와

58) John B. Hattendorf, ‘The Conundrum of Military Educ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Gregory C. Kennedy and Keith Neilson(eds.), *Military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Praeger, 2002), p.2

59) 위의 책, p.7

60) Andrew Lambert, ‘History as Process and Record: The Royal Navy and Officer Education’, 위의 책, p.103

61) Peter Gray, *The Leadership, Direction and Legitimacy of the RAF Bomber Offensive from Inception to 1945* (London: Bloomsbury, 2012), pp.39-44

함께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1기와 2기의 교육과정에서 「사기」 과목 과제는 “넬슨(Horatio Nelson)의 해군, 가리발디(Joseph Marie Garibaldi)의 비정규전 부대,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육군의 사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병력들의 자질과 리더들의 (지휘)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sup>62)</sup> 이러한 주제는 군인에게 보편적인 문제였기에, 우수한 과제물은 심의를 거쳐 참모대학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교지인 「매(The Hawk)」 나 공군본부 차원의 출판물(Air Publications)을 통해 전 공군에 전파되기도 했다.<sup>63)</sup>

브룩-포퐁이 진행한 「통솔력과 사기」는 “인간본성”으로부터 시작해 집단심리, 일반적 추론을 위한 역사적 사례와 이를 현재 영국공군의 상황에 적용하는 구조로 수업이 구성되었다.<sup>64)</sup> 교육생에게 요구된 과제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는데, 4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넬슨이나 가리발디가 아닌 말버러(John Churchill, 1st Duke of Marlborough)와 나폴레옹을 비교하는 과제가 제시되었다.<sup>65)</sup> 넬슨과 가리발디의 사례를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 교육생은 ‘동기부여와 리더’가 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sup>66)</sup> 3기와 4기에게는 색다른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열광과 규율”에 대해 영국내전과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역사적 사례들에서 추출해낸 사기를 구성하는 특정한 요소들을 현대 공군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거의 동일했다.<sup>67)</sup>

62) TNA, AIR 10/973, A Selection of Lectures and Essays from the Work of Officers Attending the First Course at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23, December 1923

63) 해당 사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참모대학 1기를 수료하고 2차대전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찰스 포털(Charles Portal)의 글이다. 위의 글 참조.

64) RAFM, AIR 69/23, Some notes on Morale, January 1923

65) RAFM, AIR 69/42, Note on leade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Marlborough and Napoleon, December 1925

66) AIR 10/973, A Selection of Lectures and Essays, pp.150-161

67) RAFM, AIR 69/36, Notes on Enthusiasm and Discipline, September 1924

「통솔력과 사기」 과목이 역사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언젠가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이나, 1930년대 이전의 강의록이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사료적 한계로 인해 그 정확한 시점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6기의 「통솔력과 사기」 토론에서 교육생들은 대체로 공군의 소속감(혹은 사기, esprit-de-corps)이 대대와 기지 중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논의했다.<sup>68)</sup> 7기의 「통솔력과 사기」 과목을 통해 제출된 과제물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앞선 기수보다 훨씬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sup>69)</sup> 이후로는 공군 간행물이나 「매」 중 어디에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생의 글은 등장하지 않으며, 이는 이론과 현실을 나름의 방식으로 묶는 ‘방법론적인 혼합’이 1930년대 들어서부터는 크게 시도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후 남아 있는 기록물은 14기에서 한 교육생이 「통솔력과 사기」 과목에 대해 남긴 노트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역사적 요소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오히려 그는 완전히 이론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기를 지배하는 요소는 “감정, 습관, 통솔력”이라고 결론짓는다. 이후 교육생은 “인성, 이성, 결단력,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로 꼽는데, 이 과정에 등장하는 역사적 요소라고는 나폴레옹과 무어(John Moore)의 경구가 전부이다.<sup>70)</sup> 이후 기수에서 발견되는 교육생들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등장한다.<sup>71)</sup> 분명 이러한 급격한 방법론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해당 과목의 1차 사료로 증명하기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공군의 누적된 경험과 이에 따라 향상된 자신감은 “자신(공군)만의 해결방법”을 찾으려 촉진했

68) RAFM, AIR 69/54, D.S. Notes on Conference No.3 Morale, March 1928

69) RAFM, 작성자 미상, ‘Leadership and Morale’ in *The Hawk*, No.2 (1929)

70) RAFM, AIR 69/129, Leadership and Morale by F/Lt. C. T. Edwards, September 1936

71) RAFM, AIR 69/146, Leadership and Morale by S/Ldr. G. R. Beamish, September 1937

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sup>72)</sup> 이는 공군참모대학의 모든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 5. 실용적 활용을 위한 군사사 - 전쟁의 원칙 발굴하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발견한다는 명제는 쉽게 정당화하기 어려워졌으나, 군사사는 대대로 “실용적인 지침”을 위해 사용되었다.<sup>73)</sup> 영국 군사사가들의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전통은 대체로 19세기부터 확립되어서 20세기에 뿌리내렸으며,<sup>74)</sup> 바실 리델 하트와 J. F. C. 풀러는 1930년대에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sup>75)</sup> 존 샴이어(John Chamier) 공군 대령은 “전략적 원칙들은 역사 연구에서 추론되는데 항공전사는 가장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상과 해상전략의 원칙을 항공전략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6)</sup> 공군참모대학장은 매 기수마다 「전쟁의

---

72) AIR 69/54, D.S. Notes on Conference No.3 Morale, p.5

73) John Gooch, 'History and the nature of strategy' in Williamson Murray and Richard H. Sinnreich(eds.), *The Past as Prologue: The Importance of History to the Military Prof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33-149

74) Tim Travers, 'The Development of British Military Historical Writing and Thought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in David A. Charters, Marc Milner and J. Brent Wilson(eds), *Military Histor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London: Praeger, 1992), pp.23-44

75) RAFM, AIR 69/158, Books and Papers That May Be Studied In Connection With 3rd Term's Work. 풀러의 저서는 7기부터, 리델하트의 저서는 11기부터 참모대학의 교육생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에 포함되었다. 브룩-포럼은 두 저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으며, 심지어 1기 교육과정에서 풀러는 기계화전(Mechanical Warfare)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76) John A. Chamier, 'Strategy and Air Strategy', *Journal of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Vol.66(4) (1921), pp.641-661

원칙(the Principles of War)」에 대해 1~2시간에 걸쳐 강의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sup>77)</sup>

하지만 「전쟁의 원칙」의 강의 구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3기부터 8기까지는 「전쟁의 본질」이라는 1시간 단위의 강의를 신설되었고, 이후 4년간 교과과정에서 제외된 후 「전쟁의 원칙 - Part I」으로 흡수되었다.<sup>78)</sup> 이후 「전쟁의 원칙」은 2시간으로 운영되었다. 강의는 제목 그대로 그리스 시대부터 당대까지의 전쟁의 본질을 다루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전투, 알렉산드로스 대왕, 로마의 군단 체계, 기사(cavalry)의 시대, 구스타부스 아돌푸스(Gustavus Adolphus)와 러일전쟁 등 다양한 범위를 포괄했다. 강의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쟁수행에서 군수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는데, 여기서 대학장은 미래전에서 산업과 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현대 국방의 최일선”에 있는 그들이 “항공전쟁수행에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sup>79)</sup> 그러나 그는 전략폭격이 다음 전쟁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양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해군이 다시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sup>80)</sup>

1936년의 「전쟁의 원칙 Part I: 전쟁의 본질」에서도 거의 유사한

77) 강의는 매년 유지되었으나 제시되는 전쟁의 원칙은 종종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에 바랏(A. S. Barratt) 소장은 미국의 ‘간결성(Simplicity)’과 클라우제비츠의 ‘추격(Pursuit)’ 및 ‘대중의지지(Public Opinion)’ 세 가지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AFM, AIR 69/119, The Principles of War, February 1936; 참모대학에서 진행된 전쟁의 원칙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이른바 영국식 전략문화를 단단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Alaric Searle, ‘Inter-service Debate and the Origins of Strategic Culture: The ‘Principles of War’ in the British Armed Forces, 1919-1939’, *War in History*, Vol. 21(1) (2014), pp.4-32

78) AIR 69/119, The Principles of War

79) AIR 69/67, The Nature of War, p.9

80) 위의 글, p.8

내용을 다루었으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sup>81)</sup> 강사는 미래전의 특징에 대한 예측은 많은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처럼 오직 “극소수의 독창적인 사상가(original thinkers)”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강의에서 알렉산더 대왕, 넬슨 제독을 포함하는 그 명단에 휴 트렌차드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sup>82)</sup> 또한 이전에 그저 그리스 방진의 지휘관정도로 막연하게 언급되던 알렉산더 대왕은 “공세정신(the offensive spirit)”의 화신으로 묘사되며 강의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sup>83)</sup> 군수지원을 언급할 때 해군에 대한 이전의 긍정적인 언급은 사라진 대신, 대학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공군의 전력 증강정책은 “무언가 급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너무 늦거나 너무 느리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sup>84)</sup> 그는 그의 강의를 교육생들에게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1930년대에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영국공군이 자신의 역할을 공세적인 전략폭격을 중심으로 규정해 나가는 노력이 공군참모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원칙」을 군사사에 실제로 적용하는 강의가 「지상전(Land Warfare)」이었다. 공군참모대학의 초창기에 육군과 관련된 강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기의 교과과정에서 「지상전략(Land Strategy)」은 10시간, 「지상 전술(Land Tactics)」은 7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sup>85)</sup> 「지상전략」은 이후 「지상전(Land Warfare)」으로, 또 「전쟁의 발전(the Development of War)」으로 강의 제목이 변경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sup>86)</sup> 지상전략/지상전 강의는 “지상에

81) AIR 69/119, The Principles of War

82) AIR 69/119, The Nature of War, p.7

83) 위의 글, p.9

84) 위의 글, p.21

85) AIR 69/19, Programmes of Work - 1st Course

86) AIR 69/38, Programmes of work - 4th Course

서의 전쟁에 (전쟁의)근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시대를 거쳐 화기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강의 후반부는 말버러와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동과 전투 경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었다.<sup>87)</sup>

「전쟁의 발전」은 “역사의 여러 지휘관들 중 일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초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최초의 시기부터 로마의 몰락’, ‘중세시대부터 프랑스혁명까지’, ‘나폴레옹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세 시기로 전체 군사사를 나누어서 분석했다.<sup>88)</sup> 언제나 강의의 내용에서 공군을 위한 추론을 하고자 했던 「지상전」과는 달리, 「전쟁의 발전」은 이를 시도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더 역사적인 접근법을 유지했다. 하지만 강의가 짧지 않은 시간을 할당받았음에도 교관은 군사사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교육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sup>8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기 이후로는 이처럼 자세한 군사사를 다루는 강의가 생략되었고, 다만 외래장사인 육군 장교가 「지상전략」을 1시간동안 강의하는 데 그쳤다.

## 6. 7년전쟁: 전쟁 최고지휘부를 위한 교과서

마지막으로 「7년전쟁」은 그 지속성과 주제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3기에 6시간에 걸친 강의와 토의로 시작되어 15기에 2시간

87) AIR 69/40, Land Warfare for 4th Course, 1st Term, 1925

88) RAFM, AIR 69/211, Notes on the Development of War, Jan. 1938

89) AIR 69/40, Land Warfare (1) The Development of War on Land, p.1

강의에 이르기까지 1차대전을 제외하면 단일 전쟁을 다룬 가장 오래 지속된 과목이다.<sup>90)</sup> 10년 이상 지속된 강의 및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문서고에 남아 있는 기록은 2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교관은 왜 가장 “어린” 군종이 “상당히 구식”으로 보이는 “거의 200년 전에 벌어진 전쟁”을 공부해야하는지 설명한다.<sup>91)</sup> 그는 “전쟁의 원칙”의 지속성에 대해 강조하며, 역사 공부는 “지도자들이 마주한 문제들”과 그들의 대응을 보여주며 교육생들은 “원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겸비한 본인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사에 따르면 그런 맥락 속에서 7년전쟁이 선정된 이유는 “서로 다른 군종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공감”과 “고위급 장교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부 관료의 전략의 원칙에 대한 파악”이라는 두 가지 전쟁 승리에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기 때문이었다.<sup>92)</sup>

두 번째 강의록은 코빗(Corbett)의 “(최소한 해양력에 있어서 만큼은) 대피트(William Pitt)의 지도(guidance)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는 경구로 시작하며 이 전쟁을 “(최고지휘부의)전쟁지휘(Higher Direction in War)에 대한 역사적 입문”으로 묘사했다.<sup>93)</sup>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인 나폴레옹 전쟁이 아니라 7년전쟁이 선택된 근본적인 이유였다.<sup>94)</sup> 강의는 어떻게 총리와

90) RAFM, AIR 69/33, Programmes of Work for 3rd Course, 5<sup>th</sup> May 1924 to 24<sup>th</sup> March 1925

91) RAFM, AIR 69/120, The Seven Years War 1756–1763 Lecture No. 1, February 1936, p.1

92) 위의 글, p.2

93) RAFM, AIR 10/162, The Conduct of the Seven Years War 1756–1763, 20<sup>th</sup> September 1938, p.1

94)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의 “통솔력과 전략적 통찰력의 부재”는 흔히 대피트의 전쟁지도와 대비되곤 한다. Jeremy Black, *Naval Power: A History of Warfare and the Sea from 1500*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9), p.105;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Naval Mastery* (London: Penguin, 1976), p.100

해군원수(Admiral of the Fleet)가 협력하여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해상교통로의 통제가 전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지상전과 상륙전의 형태로 벌어진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었다.<sup>95)</sup> 강의에서 현재 공군에 직접 적용해 보는 사고 실험은 단 한 번 제시되었다. 교관은 전쟁 초기에 “허약한 정치력”이 임무에 나선 제독에게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이 캐나다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정치적 정책과 그것이 군사적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조종사가 미묘한 상황에 대해 잘못 판단해서 광범위한 결과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96)</sup>

하지만 16기 강의록에는 강의 후에 진행된 토론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공군의 재정적인 측면, 대중의 여론, 지휘와 관리, 해양과 항공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각각의 경우 1930년대 현재의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재정적 위기와 그에 따른 독일의 생활 수준 하락이 다루어졌으며, 대중 여론의 측면에서는 대피트의 강인함과 1935년 이탈리아-아비시니아 전쟁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영국대중의 반응이 비교되었다.<sup>97)</sup> 한 학생은 초기의 실패를 최신화 된 정보로 극복한 벨-일(Belle-Ile) 상륙작전과 초기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다르다넬스의 실패(1915)를 대조해서 비교했다.<sup>98)</sup> 마지막으로 학장은 두 전쟁 모두 해군과 육군이 “손에 손잡고”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나, 1차대전에서 해군이

95) AIR 10/162, The Conduct of the Seven Years War 1756-1763

96) AIR 69/120, The Seven Years War 1756-1763 Lecture No.1, p.11

97) RAFM, AIR 69/188, Minutes of the Discussion on the Lecture: Seven Years War, 20<sup>th</sup> September 1938.

98) 벨-일 작전과 작전이 협상 국면에 미친 전략적인 영향력은 다음을 참조하라. Daniel Baugh, *The Global Seven Years War 1754-1763* (Harlow: Pearson, 2011), pp.526-543

“어떤 목적도 없었던” 와중에 육군은 전쟁 전에 프랑스와 체결한 동맹에 “손이 묶여” 있었다고 비교했다. 이처럼 「7년전쟁」은 주로 1차 대전의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로 기능했고 특히 전쟁 최고지휘부가 가져야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7년전쟁」은 공군참모대학이 항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전쟁일지라도 군사사의 사례를 풍부하게 받아들여 특히 장래의 지휘관을 위한 교육에 활용했다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7. 나가며

세계 최초로 공군이라는 군종을 독립시킨 영국은 공군참모대학을 창설하여 각종 행정업무와 각급 부대에 적합한 참모를 키워내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장래의 지휘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 특히 초대 대학장인 브룩-포퓰 준장은 대학 설립 초기의 실험적인 기간 동안 교육과정에 다양한 시도를 했고, 군사사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전간기 내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항공기가 없던 시절의 전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의 잠재력과 유용성을 상상해 보는 브룩-포퓰의 접근 방식은 분명 색다른 시도였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없던 시절에 활약했던)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행동은 장래 항공 지휘관이 될 교육생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접근법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영국공군의 직접적인 경험이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99)</sup>

---

99) 따라서 브룩-포퓰이 닦아 놓은 기본 조직, 방향, 윤곽은 이후 13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메이슨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Mason,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72*, p.13

하지만 ‘전쟁의 원칙’을 찾아낸다는 당대 군사사 교육의 지배적인 목표는 전간기 내내 공군참모대학에서도 유지되었다. 특히 7년전쟁은 타 군종에 대한 공감대의 필요성과 고위급 장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사례로 활용되었다. 일부 강의에서 공군의 독립이 유지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단독 작전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 공군의 존재감과 자신감이 반영되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술리펜과는 달리)이것이 ‘전략폭격’으로 특징되는 공군의 교리를 무리하게 군사사에 투영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호니가 지적했듯, 당대 항공인들이 ‘학과’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참모대학의 목표에 추가하여 일부 참모대학의 교육생들이 “분명히 공군본부의 업무인” 공군 교리의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sup>100)</sup> 그러나 참모대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초기의 혼란기를 지난 이후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군사사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군참모대학에 대한 연구들이 영국공군의 기반을 닦은 트렌차드와 참모대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브룩-포팸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초기 커리큘럼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분명 브룩-포팸은 육군참모대학에서의 정규 교육 경험과 군사사에 대한 깊은 개인적 관심을 초기 공군참모대학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참모가 아닌 향후 공군의 리더를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는 군사사 교육의 목적이 교육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브룩-포팸의 이임 후에 사라지거나 교육 내용이 변화된 과목들을 통해서 그 한계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전쟁과 같은 특정한 과목은 전쟁

100) TNA, AIR 2/251, Policy regarding RAF Staff College, a letter from DOSD(Director of Organisation and Staff Duties) to CAS, 6 Mar 1931

최고 지휘부에 대한 좋은 교육 사례로 인정받으며 전간기 내내 유지되었던 점 등을 밝힘으로써, 군사사는 1930년대까지도 공군참모대학의 교육 목표를 위한 중요한 과목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군사사 교육이 당시 영국공군이 명시적으로 내세우던 조직 독립의 당위성인 전략폭격이라는 개념과 (최소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전간기 영국공군의 편협한 시각이 군사교육에도 투영되었다는 오해가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다. 영국공군이 직접 겪은 1차대전에 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이러한 결론을 더욱 부각하면서 1930년대 이후 영국공군의 변화하는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나,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원고투고일 : 2019. 10. 11,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영국공군, 장교교육, 군사교육, 참모대학, 공군대학, 전간기, 군사사, 전쟁사, 군사사, 제2차 세계대전

<참고문헌>

1차 자료

Hansard, HC Deb, 21st March 1922, Vol. 152, Col. 293.

TNA, AIR 2, Air Ministry and Ministry of Defence: Registered Files

TNA, AIR 8, Air Ministry and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Chief of the Air Staff: Registered Files

TNA, AIR 10, Ministry of Defence and predecessors: Air Publications and Reports

RAFM, AIR 69, Air Ministry: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Andover: Reports and Papers

LHCMA, Brooke-Popham Papers

도서

게하르트 P. 그로스, 진중근 역,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 총참모부 작전적 사고의 역사』 (길찾기, 2016)

Baugh, Daniel, *The Global Seven Years War 1754-1763* (Harlow: Pearson, 2011)

Biddle, Tami Davis, *Rhetoric and Reality in Air Warfare: The Evolution of British and American Ideas about Strategic Bombing, 1914-1945*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Black, Jeremy, *Naval Power: A History of Warfare and the Sea from 1500*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9)

Bucholz, Arden, *Hans Delbruck & The German Military Establishment: War Images in Conflict* (Iowa: University of Iowa Press, 1985)

- Charters, David A., Milner, Marc and Wilson, J. Brent(eds),  
*Military Histor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London:  
Praeger, 1992)
- Dye, Peter, *The Man Who Took the Rap: Sir Brooke-Popham  
and the Fall of Singapore*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17)
- Evans, Richard, *Altered Pasts: Counterfactuals in History*  
(Waltham: Brandeis University Press, 2013)
- Gray, Peter, *The Leadership, Direction and Legitimacy of the  
RAF Bomber Offensive from Inception to 1945* (London:  
Bloomsbury, 2012)
- Hyde, Montgomery, *British Air Policy Between the Wars  
1918-1939* (London: The Chaucer Press, 1976)
- Jeffery, Keith, *Field Marshal Sir Henry Wilson: A Political  
Soldi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dy, Gregory C. and Neilson, Keith(eds.), *Military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Praeger,  
2002)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Naval Mastery*  
(London: Penguin, 1976)
- Mason, Tony, *The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22-1972*  
(RAF Staff College Bracknell, 1972)
- McPherson, James M., *Battle Cry of Freedom: The American  
Civil War* (London: Penguin, 1990)
- Meilinger, Phillip S.(edi.), *The Path of Heaven: The Evolution  
of Airpower Theory*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7)
- Miller, Russell, *Boom: The Life of Viscount Trenchard, Father  
of the Royal Air Force* (London: W&N, 2016)

- Murray, Williamson and Sinnreich, Richard H.(eds.), *The Past as Prologue: The Importance of History to the Military Prof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Overy, Richard, *RAF: the Birth of the World's First Air Force* (London: Penguin, 2019)
- Pugh, James, *The Royal Flying Corps, the Western Front and the Control of the Air, 1914-1918* (London: Routledge, 2017)
- Steinberg, John W., et al.(eds.),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Brill, 2005)
- Tal, Nimrod, *The American Civil War in British Culture: Representations and Responses, 1870 to the 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 Williams, George K., *Biplanes and Bombings: British Bombing in World War I*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9)

논문·저널

- 류한수,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 - 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제98호(2008.9.), pp.283-308, UCI : G704-000100.2008..98.002
- 이내주,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양사론』 제107호(2010.12.), pp.5-32, UCI : G704-000100.2010..107.002
- Burridge, Brian, 'The Trenchard Memorial Lecture', *Air Power Review* (Centre for Air Power Studies: Spring 2005)
- Chamier, John A., 'Strategy and Air Strategy', *Journal of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Vol.66(4) (1921),

pp.641-661

Jordan, David, 'Lieutenant-General Sir David Henderson: Forgotten Father of British Air Power?', *Air Power Review: Special Edition* (Centre for Air Power Studies: Spring 2013), pp.19-20

Mahoney, Ross, 'The Forgotten Career of Air Chief Marshal Sir Trafford Leigh-Mallory, 1892-1937: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Interwar Royal Air Force' (Ph.D.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2014)

Parton, Neville, 'The Development of Early RAF Doctrin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2, No. 4 (Oct, 2008), pp. 1155-1178 (DOI: 10.1353/jmh.0.0104), DOI:10.1353/jmh.0.0104.

Parton, Neville, 'The Evolution and Impact of Royal Air Force Doctrine: 1919-1939'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2009)

Searle, Alaric, 'Inter-service Debate and the Origins of Strategic Culture: The 'Principles of War' in the British Armed Forces, 1919-1939', *War in History*, Vol. 21(1) (2014), pp.4-32(DOI: 10.1177/0968344513505523), DOI: 10.1177/0968344513505523

Trenchard, Hugh, 'Aspects of Service Aviation', *The Army Quarterly*, Vol. 2, No.1 (1921), pp.10-21

'Architect of the RAF - Obituary of Lord Trenchard', *The Aeroplane*, 17 Feb 1956

## Seeking the figures playing the role of Carl Clausewitz and Alfred Thayer Mahan in the R.A.F : The Military History Education in the R.A.F. Staff College of Great Britain during the Inter-war Period

Lee, Sang-hyun

Great Britain established the Royal Air Force as an independent service of armed force like Army and Navy during the first world wa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history. Since the foundation of new organization was based on the wartime need, it was hardly suppressed by high pressures of reduction in defense budget and manpower during the inter-war period. The Air Force Staff College(Andover) was built in this mood and from the start it maintained the aim not just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skills of officers but also to foster potential leaders. For this purpose, military history was a major tool.

Andover's curriculum covered the variety of military histories even from the ancient one to the First World War in spite of the shortness of newly founded Air Force's history. The first commandant, Air commodore Brooke-Popham, played a serious role in this process, because he thought the broad approaches on military history was highly important for the future commanders.

The American Civil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lthough both were histories without aircraft, were actively handled in the class. Especially to find the potential roles of the Air Force, sometimes the existence of aircraft was conceived in some campaigns with great details.

Several 'Great Men' in military history were regarded as important figures in the Leadership class. In this as well, the Air Force case was not yet noticeable, so Garibaldi, Napoleon, even Nelson were accepted as role models and studied by officer-students.

Also lecturers and students seriously considered military history to find

'principles of war', while given the newness of Air Force, they never neglected other forces' principles. Particularly the Seven Years War was suggested as the best example for 'Higher Direction War' studying.

Although these subjects were never fully maintained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the newly established armed force was never shamed to refer to the other services' histories.

Keywords : Air Force, the Royal Air Force, Military Education,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Staff College, Andover, Military history, War Studies, the Second World War